전상현

"팬들에게 편안한 저녁 선물하겠다"

너무 잘하려는 욕심에 초반 부진…마음 내려놓자 밸런스 찾아
장현식·정해영과 필승조 가동… "KIA 가을잔치 가도록 최선"

"나만 잘하면 된다"며 필승조 전상현이 '편안한 저녁'을 다짐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 '30홀드-30세이브'를 합작한 장현식·정해영에 앞서 전상현을 투입해 필승조를 가동하고 있다.

부상에서 회복해 돌아와 7회를 지키고 있는 전상현은 캠프 때 KIA의 불펜진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팬들에게 편안한 저녁을 선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었다.

전상현의 시즌 초반 평가는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뭔가 예전 느낌을 찾았다가 아니었다가 그랬던 것 같다"며 "팬들에게 편안한 저녁을 약속했는데 너무 불편한 밤이 된 것 같다"고 쑥스럽게 웃었다.

전상현은 시즌 첫 등판이었던 4월 3일 LG전에서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기록했지만 이후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를 샀다.

전상현은 "첫 등판하고 결과가 좋아서 올해 그래도 괜찮겠다 올라오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너무 잘하려는 욕심이 컸던 것 같다"며 "내려 놓고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마침 밸런스 찾아서 구위가 갑자기 좋아졌다. 또 훈련하던 방식에서 느낌이 오면서 좋아졌다"고 상승세를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초반 부진을 털어낸 힘이 된 것은 '믿음'이었다.

전상현은 "자신감을 많이 잃었는데 서재응 코치님께서 자신감도 많이 심어주시면서 좋아졌다고 해주셨다. 감독님도 그런 말씀 해주신 것을 기사로 봤다. 그때 힘이 됐다"며 "스스로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 잘 안되니까 그게 컸던 것 같다.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 혼자 파고들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믿어주시니까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타선의 부진 속에서도 KIA는 든든한 마운드 힘으로 반전을 이뤘다. 경험이 쌓인 필승조와 함께 퀄리티 스타트 행진을 한 선발진의 조화 속에 KIA는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전상현은 "선발진은 정말 뭐 손댈 게 없는 것 같다. 엄청 좋다. 기록도 세우고 매 경기 6이닝 이상씩 던져주니까 불펜한테는 엄청 도움이 된다"며 "지금 선발도 좋고 불펜도 좋고 하니까 서로 믿음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분위기도 좋고 진짜 좋다"면서 '가을 잔치'를 향한 꿈을 이야기했다.

관건은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낮추는 것이다.

전상현은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빨리 안정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일단 내 자신의 안정감이 중요하다. 선수, 감독님, 팬분들이 안정감 있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구위가 되면 어떤 상황이든, 누가 나오든 자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너무 잘하려 하기보다는 예전처럼 하던 대로 하겠다. 올해 기회가 좋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가을 잔치 해보고 싶다. 꼭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I 페퍼스배 유소년 배구대회' 창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구단주 장매튜·사진)가 배구 꿈나무들의 성장과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유소년 배구대회를 개최한다.

AI페퍼스는 오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제1회 AI 페퍼스배 유소년 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4일 클럽팀 대항을 시작으로 15일 전문 체육팀이 기량을 겨룬다. 각각 8팀, 총 16개 팀이 참여하며 지난 3월부터 광주에서 직접 운영 중인 AI 페퍼스 유소년 클럽팀도 대회에 참여한다.

AI페퍼스는 유소년 선수들이 AI페퍼스 선수단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와 이벤트 게임도 마련했다.

AI페퍼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소년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AI 페퍼스 선수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회가 유소년 배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전라도 지역의 유소년 배구발전을 위해 클럽 육성 및 확대 운영뿐만 아니라 전문체육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BO 레전드 40인'은 누구

팬·전문가 투표 4명씩 10주간 발표…상위 4인, 7월 올스타전서 공개

'KBO 레전드 40인' 선정을 위한 후보가 확정됐다.

KBO는 출범 40주년을 맞아 리그를 빛낸 40명의 레전드를 투표로 선정한다. KBO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표를 위해 한국야구기자회 추천을 통해 5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투표 방식과 후보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레전드 40인'은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명단을 기준으로 팬 투표(20%) 및 전문가 투표(80%)를 거쳐 확정된다.

해당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1982~1983년 베스트10, 1984~2021년 골든글러브 수상자, 한국시리즈 MVP가 후보가 됐다.

또 꾸준한 활약으로 투수 800경기, 100승, 150세이브, 시즌 20승 이상, 타자 2000경기, 200홈런, 2000안타, 시즌 40홈런 등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한 최종 심사를 통해 총 177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번 투표 후보에서 제외됐다.

팬 투표는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SOL(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투표는 6월 5일까지 이뤄지며, 하루에 1번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투표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투표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표인단은 KBO 경기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현역 단장 및 감독, 선수, KBO 출입 기자단 대표 등 총 162명으로 구성된다.

레전드로 선정된 40명의 명단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최다 득표 상위 4인의 레전드가 오는 7월 16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서 최초 공개되며, 이후 일주일간격으로 4명씩 총 10주에 걸쳐 '레전드 40인'이 발표된다.

한편 선정된 레전드들은 KBO 리그 후반기에 시구 및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리그 40주년과 레전드 40인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괴물 공격수' 홀란, 맨시티행…이적료 807억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2) 영입을 확정했다.

맨시티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홀란의 이적에 합의했다. 홀란은 7월 1일 맨시티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맨시티가 도르트문트에 낸 이적료는 당초 알려진 7500만 유로(약 1천9억7000만원)보다 적은 6000만 유로(약 807억8000만원)다.

여기에 에이전트 수수료, 계약금 등을 더해 총 1억 유로(약 1346억2000만원)를 맨시티가 홀란드 영입에 썼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2000년생인 홀란은 2016년 브뤼네에서 프로로 데뷔해 몰데(이상 노르웨이),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도르트문트를 거치면서 리그에서만 92골을 넣었다. 2020-2021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득점왕에 올랐고,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UCL 통산 20골을 채우는 기록도 썼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 세르히오 아궤로의 빈자리를 메워줄 골잡이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한때 해리 케인(토트넘)에게 눈독 들이기도 했지만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거절하면서 불발됐다. 그러자 맨시티는 그전부터 타깃으로 삼았던 홀란 영입에 집중했다.

홀란과 도르트문트의 계약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적료로 제시하는 구단에는 반드시 이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바이아웃(이적 보장 최소 이적료) 조항이 있다.

BBC는 "맨시티로서는 토트넘과 계약이 2년 남은 케인보다 바이아웃 조항이 붙은 홀란을 영입하는 게 더 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홀란을 두고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바이에른 뮌헨(독일) 등 유럽 빅클럽들이 영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맨시티 유니폼을 입게 됐다.

/연합뉴스

'홈 8연승' 광주FC, 안영규·김경민·정호연 '베스트 11'

광주FC의 홈 8연승을 이끈 '캡틴' 안영규, '수문장' 김경민, '루키' 정호연이 나란히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1일 K리그2 14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안영규, 김경민, 정호연 등 3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광주는 지난 7일 열린 14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엄지성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리그 8경기 연속 무패이자 홈 8연승 질주였다.

안영규가 주장 완장을 찾고 팀을 이끌었고, 김경민은 후반 막판 호수비를 이어가면서 승리를 지켰다.

정호연은 후반 12분 허율의 패스를 받아 엄지성의 골을 도우면서, 프로 첫 공격 포인트를 장식했다.

한편 14라운드 MVP는 부산아이파크 이상헌에게 돌아갔다.

이상헌은 충남아산FC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부산의 3-1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안영규

김경민

정호연

베스트 매치는 4골씩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4-4 무승부가 기록된 대전하나시티즌과 김포FC의 경기다.

부천FC는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부천은 전남드래곤즈와의 홈경기에서 0-1의 경기를 2-1로 뒤집으면서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